

제70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월 4일)

## 중국 청동예기

오세은, 309호 중국실 18:00~18:30

기원전 3000년 무렵, 자연에서 우연히 발견된 홍동紅銅(자연동自然銅)은 소량의 아연과 주석이 섞여 있었고 중국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석기와 토기를 대체하는 견고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염원은 결국 청동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였습니다. 기원전 21세기 황하 유역에 나라를 건국한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 왕조는 그동안 축적한 청동 주조기술을 토대로 토기를 분떠 청동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6세기에 하 왕조를 이은 상 왕조는 하늘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청동예기를 제작했습니다. 신을 위한, 신에게 바치는 청동기에 대한 강한 멸망은 장엄하면서도 신비한 청동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 상 왕조를 이은 주 왕조는 중국 전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분봉제分封制를 실시하고, 각 지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청동기를 신분에 맞게 사용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는 황하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역별로 세력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 왕실의 세력 약화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의 변화로 청동기는 점차 신을 위한 예기가 아닌 권력자의 세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에 춘추시기 이후 더 강력한 물질인 철기가 등장하면서 제작 공정이 까다로운 청동기의 사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시기 청동예기는 국가 간 세력 격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대에 이르러 청동기는 더 이상 예기가 아닌 생활용품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림1. 작爵, 하 후기



그림2. 정鼎, 하 후기



그림3. 정鼎, 서주



그림4. 레罍, 서주 중기



그림5. 치鬯, 상 후기



그림6. 술병[壺], 한



그림7. 금문[醢父丁]



그림8. 열정제도(용정제도)

# 특별전<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10)

- 『외규장각 형지안』으로 보는 외규장각의 운영-

김진실,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외규장각外奎章閣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보물창고였습니다. 한양의 궁궐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奎章閣에 비견될 만큼 왕실 구성원의 각종 책보와 어제어필, 왕실에서 펴낸 각종 서적들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각신들이 봉심과 포쇄를 위해 1년에 한번 씩 외규장각으로 왔습니다.

병인양요(1866년, 고종 3) 때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 외규장각은 건립된 지 8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규장각의 각종 봉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던 『외규장각 형지안』이 남아 있어 당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각종 책보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의궤들은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지안에는 이 의궤들의 목록이 언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치되어 있던 의궤 약 660여 건 중에 약탈당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297건이었습니다. 약탈 직전 외규장각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서	북 좌탁		별1가	별2가	별3가	북 우탁		동
	2탁	소탁	정간 구역			소탁	2탁	
			정간 좌탁 큰 궤櫃	정간 봉안장 (3층)	정간 우탁 궤 3개			
	1탁						1탁	
	남, 출입문							

그림1. 1857년(철종 8) 형지안으로 추정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

## 신라와 황금 이야기

류정환, 108호 신라실 19:00~19:30

신라(BCE 57~CE 935)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어왔던 고대 왕국입니다. 수도인 경주[徐羅伐, 金城]를 중심으로 주변 소국을 정벌하고 통합하며, 그 영역을 크게 늘려나갔습니다. 국력이 커지는 만큼 신라 왕실의 위상도 높아졌기에, 경주 평지에 큰 규모의 무덤[積石木槨墳]을 만들고 호화로운 껍묻거리[副葬品]도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이러한 껍묻거리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이 금관을 비롯한 금제 관식, 금제 관모, 금귀걸이 등의 각종 금 장신구입니다.

이러한 신라의 금 장신구들은 어떻게 천 몇 백 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신라 왕실에서 축조하였던 무덤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널[木棺]과 각종 껍묻거리를 역시 나무로 만든 덧널[木槨]에 안치하고, 뚜껑을 덮은 다음 비교적 큰 크기의 돌을 차곡차곡 돌무지 형태로 쌓았습니다. 그 위를 다시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후대의 도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금 장신구를 세상에 알려지게 한 첫 계기는 바로 경주 노서동에 위치한 금관총입니다. 주택 공사를 하다가 무덤의 내부가 노출되어 유리구슬 등의 껍묻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주의 문화계 인사가 주축이 되어 긴급 발굴조사를 벌였고, 여기에서 금관, 관식, 금귀걸이 등의 다양한 금 장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북분) 등에서 지속적으로 금관 등의 금 장신구가 출토되어 ‘황금의 나라, 신라’를 입증해주었습니다.



그림1. 경주 금관총 전시관 전경(경주시 제공)



그림2. 금관총 내부 구조(경주시 제공)





제70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월 4일)

##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다

김혜경, 211호 기증 I 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해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함께 나누고자 상설전시관에 기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하여 지난 12월에 문을 연 ‘기증 I 실’은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증관 개편 사업의 첫 결과**입니다. 이 전시실은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하반기에 완성될 기증관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기증관 개편의 취지는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편안하게 찾아와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새롭게 문을 연 ‘기증 I 실’은 기증품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곳, 기증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영상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전시실에서 기증자의 나눔의 정신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증자와 기증품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기억을 더해가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나눔의 서재**’는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기증품을 감상하는 라운지와 기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아카이브로 구성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200여 점에 달하는 기증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기증품이 가진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마련한 아카이브에서는 기증자와 기증품 정보, 기증자가 문화재를 만나게 된 계기부터 기증을 결심하기까지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 영상, 기증 관련 신문 기사 등을 편안하게 앉아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공간은 ‘기증, 기억을 나누다’와 ‘나눔의 길’로 이어집니다. ‘기증’에 초점을 맞춰 풀어낸 ‘기증, 기억을 나누다’에서는 기증자들이 문화재를 만나고 사랑하게 된 기억, 문화재 전문가와 관람객들의 기증에 대한 생각을 들어봅니다. ‘나눔의 길’에서는 역대 수많은 기증자의 이름과 어록을 실감형 맵핑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에서는 1994년 손기정 선생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를 집중 조명하여 투구에 담긴 기억과 나눔의 가치를 살펴봅니다. 특히, 투구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내년에 완성될 기증 전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